

Identity Initiative: Study Guide

정체성 함양: 학습 안내

Understanding Who We Are As Disciples of Christ

제자회 제자들인 우리는 누구인가

Suggested Possibilities for Curriculum

권장 학습안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지식

Understanding our identity is a vital concern for all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Many long-time Disciples want us to name and claim our foundational values and commitments as a church. New Disciples want to know about our distinctive gifts as a community of faith. All of us need to have clarity about who we are in order to be faithful and effective witnesses to Jesus Christ, especially in a world that is increasingly pluralistic, globally connected, and yet so often violently divided.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모든 제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제자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들과 자세들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새롭게 함께하는 제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범 지구적으로 모두가 연결되고 점점 다양화 되는 세상 그러나 종종 폭력으로 분열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능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관해 확실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The Council on Christian Unity (CCU) and Communication Ministries (CM) have teamed up to launch an “identity initiative” to help Disciples understand and claim who we are as a distinctive community within the whole church of Jesus Christ in our world today.

교회 일치국(CCU)과 소통국(CM)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교회에 속한 공동체로서 제자회 제자들이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우리 제자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체성 함양”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In this partnership, the CCU has produced a series of brief videos, with an accompanying discussion/study guide for regions, congregations, church leadership, and small groups, that focus upon the four key concepts found in the Disciples “Identity Statement” adopted by the General Board in 2009:

이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 일치국(CCU)에서는 2009 년 총회에서 채택된 제자회의 “정체성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4 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방회, 회중, 교회 지도부, 소 그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한 비디오 시리즈 그리고 토론과 학습 안내 안을 제작했습니다:

“We are Disciples of Christ, a movement for wholeness in a fragmented world. As part of the one body of Christ, we welcome all to the Lord's Table as God has welcomed us.”

**“우리 제자회는 깨어진 세상속에서 온전성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성찬을 통해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Supporting congregations in their local efforts, Communication Ministries is offering a series of practical suggestions and materials for Disciples to share what is unique about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소통국(CM)에서는 각 개 교회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하여 제자들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만이 지니는 독특한 점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실질적인 제안들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udy Guide: Suggested Possibilities for Curriculum

학습 안내: 권장 학습안

The possibilities for this curriculum are as endless as your and your congregation's imagination. It is our hope that you use these materials in the most fitting way for your individual congregational needs. We offer these suggestions, as well as a possible meeting outline to use as a jumping-off-point for this curriculum's ministry in the life of the church.

이 권장 학습 안의 유용성은 여러분이나 여러 회중들이 지닌 상상력 만큼이나 무궁무진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각 회중들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자료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습 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각 모임 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권장 학습 진행 순서와 권장 학습 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Suggested groups: Elders, deacons, Adult Sunday School Classes, Small Groups, CYF & Chi Rho*

학습 권유 대상: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인 주일 학교들, 소 그룹들, CYF & Chi Rho

**If using these materials with CYF or Chi Rho groups, we suggest you shorten the time for the study, limiting discussion time to 30 minutes, and possibly reframing the questions for a more youthful approach.*

**만약 이 자료들을 CYF 나 Chi Rho 그룹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면, 토론 시간을 30 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전체적인 학습 소요시간을 더 짧게 하시고, 질문들도 젊은이들에게 더 적합하게 재 구성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Suggested time: 45-60 minutes, in 4 different sessions

권장 소요시간: 총 4 번 학습, 각 학습 시간 45-60 분

Suggested Leadership: These materials can be facilitated by a minister, a leader, or shared leadership within the group of participants. If you share facilitating leadership,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who the facilitator is at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인도자 선정: 목사님이나 지도자 또는 모임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인도할 때에는 각 수업시간 마다 시작을 담당할 인도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Suggested Adult Outline:

어른들과 학습할 경우:

- Gathering: Include introductions, with possible response to an “ice breaker” question (an “ice breaker” is suggested below for each session)*Allow 10 minutes for Gathering time.*
- 마음 모으기: 처음 시작할 때의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질문과 응답이 있는 소개시간 (각 수업시간 마다 사용될 아래의 예비 질문을 참고 하십시오). 이 마음 모으기 시간은 10 분을 할 해 합니다.
- Opening Prayer: This can be led the facilitator, or a volunteer.
Allow 5 minutes for Opening Prayer.
- 개회기도: 인도자나 자원자가 담당하고 5 분을 할 해 합니다.
- Watch Video (3-4 minutes)
- 비디오 보기 (3-4 분 소요됨)
- Discussion Questions
- 질문들과 토론

Allow 40 minutes for Discussion Questions
질문과 토론을 위해서는 40 분을 할 해 하십시오.

[In each of the four suggested “discussion guides,” re-watching the video (or just one or two sections of the video) might be fruitful, either in the midst of the discussion or as a concluding summation of the group’s conversation.]

[이들 4 개의 “토론 안내”에 근거하여 모임을 인도하실 경우에는 토론 시간 도중
이나 전체적으로 대화를 요약하고 마감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비디오를 한번 (비록
한 두 부분만 본다고 할지라도) 더 보는 것이 효율적 일 것입니다.]

- Closing Prayer
- 마감기도

Allow 5 minutes for Closing Prayer

마감기도 시간을 위해서는 5 분을 할 해 하십시오.

Suggested Youth Outline:

청소년과 학습할 경우:

- Opening question & prayer (include introductions if needed): What’s your hope or prayer for tonight as we discuss [insert theme] tonight? After each person shares, collectively say “Amen.”
Allow 10 minutes
- 개회 기도와 질문 (소개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포함시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주제를 삽입함]을 토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대사항이나 기도제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각 사람들의 발언 후엔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합니다.
10 분 정도를 할 해 합니다.
- Possible Opening Game: Group building, team work, or community focused games help illustrate the four themes.
Allow 15 minutes
- 개회 놀이: 그룹빌딩, 팀웍, 단체심 증진 놀이들은 4 개의 주제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15 분을 할 해 합니다.
- Watch Video (3-4 minutes)
- 비디오 보기 (3-4 분)

- Discussion Questions
- 토론 질문들

Allow 30 minutes

30 분을 할 해 합니다.

[In each of the four suggested “discussion guides,” re-watching the video (or just one or two sections of the video) might be fruitful, either in the midst of the discussion or as a concluding summation of the group’s conversation.]

[이들 4 개의 각 권장 “토론 안내”을 사용하시면 각 토론 시간 중간이나 그룹의 대화를 마감하는 시간에 전체를 요약하는 방편으로 비디오를 한번 (비록 한 두 부분만이라도) 더 보는 것이 효율적 일 것입니다.]

- Closing question & prayer: “Where did you hear or see God tonight as we discussed [insert theme]? After each person shares, collectively say “Amen.”

Allow 5 minutes

- 폐회기도와 질문: “우리가 오늘 밤에 [주제를 삽입함]을 토론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발언이 끝날 때 마다 모두가 함께 “아멘”하고 화답한다.

5 분을 할 해 하십시오.

Links to Videos (these are found under the tab “Who Are We” on www.disciples.org - click on “Our Identity”)

비디오 보러가기(www.disciples.org 의 “우리는 누구인가” 제목 아래 부분에 위치한 - “우리의 정체성”을 클릭하십시오.)

- “Movement”: <http://www.youtube.com/watch?v=Oz6nZFfSwuQ&feature=youtu.be>
- “Wholeness”: http://www.youtube.com/watch?v=ZKRK_GHulVw&feature=youtu.be
- “Welcome”: <http://www.youtube.com/watch?v=gdQxkvkqkIQ&feature=youtu.be>

- “Table”: <http://www.youtube.com/watch?v=ZRIFeqQKETk&feature=youtu.be>
- “운동”: <http://www.youtube.com/watch?v=Oz6nZFfSwuQ&feature=youtu.be>
- “온전성”: http://www.youtube.com/watch?v=ZKRK_GHulVw&feature=youtu.be
- “환영”: <http://www.youtube.com/watch?v=gdQxkvkqkIQ&feature=youtu.be>
- “성찬”: <http://www.youtube.com/watch?v=ZRIFeqQKETk&feature=youtu.be>

Discussion Questions related to each Video

각 비디오 사용시의 토론 유도 질문들

“Movement” Video Discussion Guide:

“운동” 비디오 토론 안내:

Icebreaker question - “How long have you been a member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모임 시작 도움 질문 – “당신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제자가 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1. Which description of “movement” rang true for you? What words were the most surprising?
“운동”에 관한 설명 중에서 당신에게 특히 다가왔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의외라고 느껴졌던 용어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2. As Disciples of Christ, we strive to follow Christ. Cathy Hubbard understood the life of the disciples as a journey of change. What changes have occurred because of the church? What changes is God calling this movement to create?

우리는 제자회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캐티 허바드는 제자들의 삶이 변화의 여정이라고 이해 했습니다. 무슨 변화들이 교회 덕분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운동이 일으키길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3. Michael Swartzentruber states a movement as being risky, bold, and creative. How does our church live out this understanding? Where are places where we could live this out more fully?

마이클 슈와츠크트루버는 운동이 모험을 감수하고 과감하며 또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4. “Syncopated with heaven!” Christal Williams offers us a vivid metaphor of “movement.” Where is our church in sync as we move together? Where might we need to find more syncopation together?

“천국에 까지 연결되어 있는!” 크리스탈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선명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서로 함께 협조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서로 더 협력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Wholeness” Video Discussion Guide:

“온전성” 비디오 토론 안내:

Icebreaker question– What examples of fragmentation in our world can you think of?

모임 시작 도움 질문 – 깨어진 세상임을 보여주는 실례들로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 The video begins with “What does Wholeness mean to you?” Take a moment and share with the others in the room how you understand “wholeness.”

비디오는 “여러분들께 온전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자신들은 “온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2. “Wholeness is ... celebrating the dignity and diversity of difference – not tolerating, but embracing difference.” These are the hopeful words of Alvin Jackson, highlighting the beauty and challenge to wholeness. Where do you see moments of dignity and diversity within your congregation?

“온전성은 ... 다름의 존귀함과 다양성을 기뻐하고 – 그저 묵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름을 품어주며.” 바로 알빈 잭슨의 온전성에 관한 아름다움과 도전을 강조해 주는 희망적인 어휘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내의 어느 곳에서 존엄성과 다양성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3. What are the challenges to wholeness you see within our church?

여러분이 보시기에 온전성을 어렵게 만드는 교회내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4. While we live to become whole people, a whole church, Michael Karunas reminds us that wholeness is a process. How is God calling you and your church into greater wholeness?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이클 캐루나스는 온전성이 과정이라고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좀 더 멋진 온전성의 모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5. Molly Goodrich shared many images and stories of wholeness. What’s your wholeness story?

말리 글리취가 온전성에 관한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온전성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Welcome” Video Discussion Guide:

“환영” 비디오 토론 안내:

Icebreaker question – Describe a time when you felt welcome. How did it feel? Describe a time when you felt unwelcome. How did it feel?.

모임 시작 도움 질문 – 여러분이 환영 받는다고 느꼈던 때에 관해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느낌이 어땠었나요? 여러분이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관해서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1. We greet everyone as they come into the church doors, but how do we understand the ways our church “welcomes” people?

우리는 교회 문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교회가 사람들을 “환영”하는 방식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 Paul Tche hopes authentic welcome is a community that transforms lives. In what ways does the church embody this hope? How is the church transforming lives?

폴체는 진실한 환영은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라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런 소망을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삶들을 변화 시키고 있습니까?

3. Susan Shank Mix gave us a list of the many things a church welcomes – fun, fellowship, laughter, shared sorrows, fascination & frustration. How do you see the church welcoming this list? What would you add to this list?

수잔 생크 믹스는 교회가 환영하는 많은 종목 – 재미가 있고, 사귀어 있고, 웃음이 있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흡족함과 좌절감 - 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이 종목들을 환영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이 종목들에 추가 하시겠습니까?

4. True welcome “makes me feel at ease and understood.” Chimiste Doriscar names what we all hope for. How does the church live this out and what can we do to ensure everyone feels welcome and understood?

진정한 환영은 “저를 편안하게 하고 제가 이해되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취미스테 도리스카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런 소망을 구체화 시키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고 이해되고 있다고 느낄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5. Is there anyone you believe would feel unwelcomed at our church? Why?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에서 환영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 그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Table” Video Discussion Guide:

“성찬” 비디오 토론 안내:

Icebreaker question – Describe a meaningful time you’ve had that involved the Lord’s Table.

모임시작 도움 질문 –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경험했던 의미 있었던 순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1. The table is the center of our sanctuaries, the center of our worship, and the center of our identity as Disciples of Christ. How do you understand the “table?”

성찬은 우리 성소들의 중추, 우리 예배의 중심 그리고 제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2. Anne Bruce suggests that the table is more of a verb, than a noun. How do you see the table in action within the church and world?

앤 브루스는 성찬이 명사라기 보다는 동사라고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세상에서 성찬의 역동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3. In thinking about the “communion table” in your congregation, do you see a connection to the “family table” in your home where you gather to share meals? (And, how would do describe that connection?)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누는 “가족들의 식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면, 어떻게 이 연관성에 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 “For me the table is a justice issue.” Don Gillett invites us to see the call for justice coming from the table. Where have you seen the church respond to this call?

“저에게 성찬은 공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 질렛트는 성찬에서 공의를 향한 요청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런 요청에 반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5. As we come to the table every week, we have the chance to recommit ourselves to following Christ. To which description of the table do you think we should commit ourselves? What commitment would you add to our unity at the table?

우리는 매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재다짐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성찬에 관한 묘사들 중에서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설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다짐을 성찬에서의 우리의 일치성에 더해서 추가 하시겠습니까?

Link to CCU page: <http://ccu.disciples.org/>

교회 일치국 웹사이트 보러가기: <http://ccu.disciples.org/>

Appendix:

부록:

Principles of Identity (prepared by the 21st century Vision Team to accompany the Disciples "Statement of Identity," 2009)

정체성 확립의 원칙들 (21 세기 비전팀이 2009 년 제자회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수반하기 위하여 준비했음)

1. We confess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proclaim him Lord and Savior of the world, requiring nothing more - and nothing less - as a basis of our life together.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는 주님 이심을 선포합니다.

2. We hold the centrality of scripture, recognizing that each person has the freedom - and the responsibility - to study God's Word within the community of the church.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삼으며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인정 합니다.

3. We practice the baptism of believers, which emphasizes that God's grace demands a response of faith and discipleship, while also recognizing the baptism performed in other churches.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한 제자다운 삶으로 화답해야만 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는 자들의 세례를 행합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합니다.

4. We gather for the Lord's Supper, as often as possible, experiencing at this table the gracious, forgiving presence of Jesus Christ.

우리는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자주 함께 모입니다.

5. We structure our community around the biblical idea of covenant, emphasizing not obedience to human authority but accountability to one another because of our shared obedience to Christ.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적 권위엔 복종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경의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6. We participate in God's mission for the world, working with partners to heal the brokenness of creation and bring justice and peace to the whole human family.

우리는 동역자들과 힘을 합해 상처 입은 창조세계를 치유하고 전 인류 가족이 평화와 정의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 합니다.

7. We hear a special calling to make visible the unity of all Christians, proclaiming that in our diversity we belong to one another because we commonly belong to Christ.

우리는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함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또 서로에게 속해있음도 보여주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일치성을 가시화 시켜 보라는 특별한 요청을 듣습니다.

8. We witness to the Gospel of God's saving love for the world in Jesus Christ, while continuing to struggle with how God's love may be known to others in different ways.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언 합니다.

9. We affirm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rejoicing in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 which include the gift of leadership - that God has given for the common good.

우리는 - 하나님께서 공공의 선을 이룩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지도력의 은사를 포함하는 - 성령님의 은사를 기뻐하며 만인 제사장 설을 긍정합니다.

10. We celebrate the diversity of our common life, affirming our different histories, styles of worship, and forms of service.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의 역사나 색다른 예배 방식 그리고 예배의 형식들을 인정 해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성을 만끽합니다.

11. We give thanks that each congregation, where Christ is present through faith, is truly the church, affirming as well that God's church and God's mission stretch from our doorsteps to the ends of the earth.

우리는 우리들의 문턱에서 세상의 끝에 이르기 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전도사역에 함께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이 바로 참 교회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2. We anticipate God's coming reign, seeking to serve the God - Creator, Redeemer, and Sustainer - whose loving dominion has no end.

우리는 -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후원자 되시는 -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그날을 고대합니다.